

LES CHEMINS DE LA  
**MÉMOIRE**

# 추모의 길

**282호**

2023년 봄

## 1953년, 한국에서 마지막 전투

### 대담

에토리 대령  
주한 프랑스대사관 국방무관

### 별책 부록

유엔군 프랑스대대의 한국전쟁 참전



1037고지 전투(1951년 3월)

© Paris - Musée de l'Armée, Dist. RMN-Grand Palais/Tony Querrec

# 기억을 되살리다

프랑스 군 최초의 유엔 산하 파병이었던 한국전쟁은 현대의 분쟁들 중 종종 잊혀 지곤 하지만, 인류를 3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냉전의 결정체였다. 전쟁에 참가한 이들 중 3천명 이상이 프랑스 병사였다. 흔히 ‘BF/ONU(프랑스어 Bataillon français de l’ONU의 약자)’라고 불리던 유엔군 프랑스대대는 국제법 준수를 몸소 실천하고자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된다.

참전 종료 및 판문점 휴전 협정 이후 7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전쟁은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의 집단 상상계 속에서 자리를 잃어버렸지만, 프랑스의 추후 영외 작전의 시발점이 된 이 전쟁에 추모의 길 이번 봄 호를 헌정하고자 한다. 역사가 로랑 키세피(Laurent Quisefit)의 기고문에서 1953년 1월에서 7월 사이 한반도에서 발생한 마지막 전투들의 윤곽이 그려진다.

추모 및 교육 자료로서 제작된 이번 호는 주요 참전용사협회들의 지원으로 한 해 동안 개최될 행사들에서 배포될 예정이다. 파트리시아 미랄레스(Patricia Mirallès) 참전용사 및 추모 담당 국무장관은 ‘사건(L'événement)’ 장에서 한국전쟁의 기억을 2023년 추모의 해의 하이라이트로 삼게 된 이유들을 상기시킨다. 프랑스군과 한국군이 하나 되어 싸웠던 유엔군 프랑스대대의 참전 기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해에 양국 관계를 한층 튼튼하게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 실뱅 마티우시(Sylvain MATTIUCCI)

추모·문화·기록국장



유엔군 프랑스대대 마크

© ECPAD/collection Amicale des Anciens  
du Bataillon de Corée/attribué à Pierre Ferrari



LES CHEMINS DE LA  
MÉMOIRE

# 추모의 길

## 추모의 길

프랑스 군무부  
행정사무총국  
추모·문화·기록국  
교육활동 및 추모정보처

60, boulevard du général  
Martial Valin CS 21623  
75700 Paris Cedex 15

구독 및 해지  
dmca-cheminsdememoire.  
redac.fct@intradef.gouv.fr

### 발행인

실뱅 마티우시

### 편집장

아르노 파피용(BAPIM)

### 부편집장

놀웬 데양(BAPIM)

### 편집위원회

모리스 블레이쉴(BM2C)  
알렉상드라 데르보(BPLM)  
카트린 뒤퓔이(ECPAD)  
질 페라귀(SHD)  
로라 가르니에(ONaCVG)  
마리 크리스틴 니콜라(BPLM)  
기욤 피샤르(BPLM)  
이사벨 솔라노(SDPC)  
베레니스 발케나에레(BAPIM)

### 디지털 발행

조엘 로젤로(BAPIM)

### 구독자 관리

프레데릭 게나르(BAPIM)

### 커뮤니케이션 팀장

플로랑스 뒤오(SGA/COM)

### 그래픽디자인

틸 그래픽 센터 Pôle Graphique de Tulle(SCA/CIM)

### 인쇄 및 배포

틸 그래픽 센터 Pôle Graphique de Tulle(SCA/CIM)  
2, rue Louis Druliolle  
CS 10290 - 19007 Tulle Cedex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1150-70 55

발행 부수: 23,000부

납본: 2023년 1분기



‘추모의 길’ 사이트에서 추모 관련 뉴스 및 역사적 기사 등 심층 자료를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역사와 기억’ 란에서 ‘추모의 길’ 지난 호를 만나 보세요.

# 목차

사건  
장관의 시선

6/7

그날의 기록

1953년, 한국에서 마지막 전투

8/13

대담  
에토리 대령  
주한 프랑스대사관 국방무관

14

현재  
부산 유엔기념공원의 프랑스 묘역

16

연결  
서울프랑스학교, 참전 용사들과 만나다

17

교차로

18

287

한국전쟁 이후 ‘프랑스를 위해  
전사하다’라는 헌사를 받은 유  
엔군 프랑스대대의 군인 수.  
이들 중 한국 국적자가 19명이  
었다. 오늘날 44명이 부산 유  
엔기념공원에 잠들어 있다.

## 일정

4월

30일 강제 이주 희생자 및 영웅 추모일

5월

8일 1945년 5월 8일, 유럽 전승 기념일

14일 잔 다르크와 조국애 축제

27일 레지스탕스 국경일

6월

8일 인도차이나전쟁 전사자 추모일

18일 1940년 6월 18일, 패배를 거부하고 적과  
의 싸움을 이어 나가자는 드골 장군의 호소  
를 기념하는 국경일



# 장관의 시선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하여 참전용사 및 추모 담당 국무장관이 유엔기 아래 몸바친 프랑스 군인들의 참전과 희생을 기린다. 장관은 프랑스와 한국이 공유하는 기억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의 중요성 또한 상기시킨다.



파트리시아 미랄레스(Patricia Mirallès) 참전용사 및 추모 담당 국무장관

© SCH Christian HAMILCARO/Ministère des Armées

2차 세계대전 이래 프랑스군이 가담했던 모든 전투들 가운데 한국전쟁은 단연 프랑스에서 가장 적게 언급되며, 프랑스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가장 희미한 전투 중 하나일 것이다. 추모의 길 한국전쟁 특집호를 소개하는 이 글은 한국전쟁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프랑스의 군인들과,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 3년 간의 전투에 몸담은 유엔군 프랑스대대의 기억을 오랜 시간 동안 홀로 지켜온 참전용사협회들에게 헌사를 바치며 시작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프랑스가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된 경로는 완전히 새로웠다. 당시 파리에 본부를 두었던 유아기 단계의 유엔과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최초로 전쟁 무대의 중심에 프랑스가 서게 된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중공군의 지원을 받아 대한민국을 공격한 사안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83호는 무력을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원조'를 제공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촉구했다.

프랑스가 라 그랑디에르(La Grandière) 구축함 한 척과 함께 파병한 해군 병력은 미국 및 영국 국적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엔군에 병합되었고, 1950년 8월 25일, 유

엔군 프랑스대대를 창설한다. 천여 명으로 구성된 이 대대는 미국 제2 보병사단 23연대에 소속되어 싸웠다. 이들은 1917년 1차 세계대전 말기 전투에 투입되기 위해 훈련된 용병들이었다. 교대병 및 전사자들을 포함해 약 3,500명의 프랑스 군인이 1951년 1월부터 적대행위가 종료되기까지 2년 반 동안 한국전쟁에 참가했다.

당시 독트했던 이 구성이 한국 영토에서 싸웠던 프랑스군의 역사와 업적에 대한 프랑스 사회의 상대적 무지를 일부 설명해준다.

프랑스대대 병사들이 특별한 이유는 그들이 전장에서 보여주었던 대단한 용맹함 때문이다. 한국에서 유엔군 프랑스대대의 인명피해는 전사자 및 실종자 300명, 부상자 1350명으로 그들의 병력 대비 희생이 가장 큰 부대 중 하나였다.

## 프랑스의 참여정신과 고강도 전투

유엔군 프랑스대대의 참전은 프랑스 군대의 참여정신을 오롯이 보여준다. 국제법에 의거해 공격 피해를 입은 우방국을 돕기 위해 달려온 프랑스대대 정병들은 현역과 예비역을 막론하고 모두 지원병이었다.

그들의 사령관 몽클라르(Monclar) 장군은 조국의 가치와 안보를 지키겠다는 자신의 맹세를 지킨 본보기와 같은 인물이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동안 수차례 무공십자훈장, 대십자 등급 레지옹도뇌르훈장, 해방훈장, 레지스탕스훈장, 프랑스 군대 역사상 최다 수훈자 중 한 명인 그는 59세의 나이에 한국에서 전투를 치르기로 선택한다. 은퇴 하루 전날, 몽클라르 장군은 장군의 별을 내려놓고, 유엔군 프랑스대대의 사령관직을 맡기 위해 중령 계급장을 다시 꿰매어 달았다.

한국전쟁은 2백만에서 3백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핵폭격의 위협이 산재했던, 매우 강도 높은 전투였다.

프랑스군이 두각을 보였던 전투들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1951년 1월의 쌍터널 전투 당시 프랑스대대는 미 공군의 네이팜탄 폭격 지원 아래 중공군으로부터 땅을 뺏고 빼앗기는 싸움을 이어갔다. 2월의 지평리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3일간 중공군에 포위된 채로 공격에 저항한 끝에 ‘시체 산더미’를 뒤로 하고 중공군을 물리쳤다. 1951년 9월의 단장의 능선 고지와 같은 전투들

의 맹위는 헐리웃 영화에서 단골소재로 등장하기도 했다. 유엔군 프랑스대대에게 있어 한국전쟁은 1차 세계대전의 잔혹함에 2차 세계대전의 화력이 더해진 전투였다.

## 가꾸어 풍성해지는 공유된 기억

근 80년 만에 유럽 대륙에서 강도 높은 분쟁이 재발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 국민들의 사기를 드높이는 것은 조국 단결의 관건이다. 프랑스군의 한국전쟁 참전 기억을 가꾸고 풍성하게 만드는 일은 이를 위해 귀중한 도구가 되어준다.

이미 여러 기념물들이 유엔군 프랑스대대의 병사들을 기리고 있다. 파리의 개신문 아래에 놓인 유일한 묘비 하나는 특정 부대에 게 헌정된, 매우 상징적인 것이다. 파리 4구에는 프랑스대대의 이름을 딴 광장 인접한 곳에 이들을 기리는 기념물이 설치되어 있다. 사르트와 모르비앙, 루아르 아틀랑티크 등 프랑스의 여러 지방에도 한국에서 싸운 프랑스 군인들에게 헌정된 여러 기념물과 공공장소들이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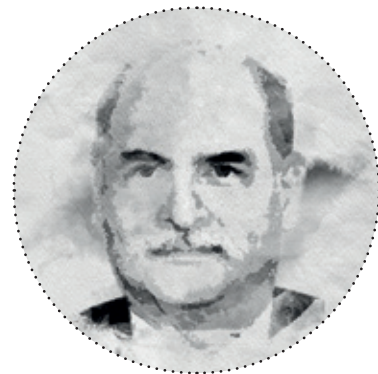
프랑스 군무부는 서울에 있는 프랑스대사관의 무관실을 비롯해 참전용사협회들과 연계 하에 실종된 프랑스 용사들의 마지막 유해 신원확인 작업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다가오는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날, 한국은 전쟁의 종료를 기념할 것이다. 나는 그날, 프랑스의 우정을 증명하고, 한국전쟁 참전 프랑스 용사들과 영광의 전장에서 쓰러진 우리 군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프랑스가 한국과 공유하고 있는 이 기억을 가꾸고 풍성하게 채워 나갈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며, 이를 위해 프랑스의 동맹국 한국의 편에 설 것이다.



로랑 키세피(Laurent Quisefit)

8173 중국·한국·일본 공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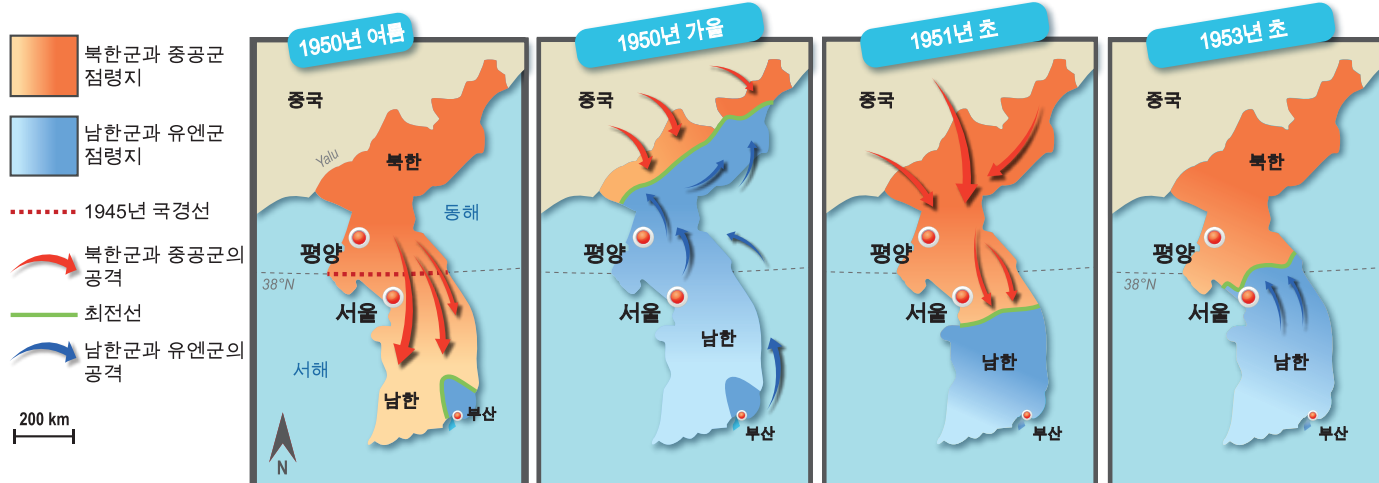
# 1953년, 한국에서 마지막 전투

공산주의 진영의 북한과 유엔의 지원을 받은 남한이 대립하던 한국전쟁은 3년 간의 참혹한 충돌 끝에 1953년 7월 27일 막을 내렸다. 그러나 그 어떤 평화 조약도 체결되지 않았다. 이후 70년 간 중무장된 국경지대인 38선 주변으로 양국의 긴장 관계는 정기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한반도의 전쟁을 멈추게 할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냉전기에 발생한 주요 위기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이 분쟁은 양 진영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전장이었으며, 원자폭탄의 사용이나 3차 세계대전의 발발 등 국제적인 불안을 야기했다. 휴전 협정이 적대행위를 중단시켰을지언정, 한국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그 어떤 평화조약도 체결되지 못 했다. 남한과 북한은 공식적으로 여전히 전쟁 상태다.

## 분쟁의 기원

한반도는 아시아에서 전략상 최고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다. 남 쪽으로는 러시아 함대가 얼지 않는 바다로 진출하는 것을 차단 한다. 그나마 블라디보스톡에서 연결되는 다른 해상 통로들마저 겨울에는 빙판으로 뒤덮이고 일본의 통제를 받는다. 중국에 게는 한반도가 보루가 되어주고, 한반도를 거점으로 1950년 당시 러시아의 조차지였고, 오늘날 중국의 다롄시에 자리한 뤼순 항과 황해에 위협을 가할 수 있었다.





20세기 초, 군국주의 일본은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 후 포르모사 섬(대항해시대 때 대만에 붙여진 이름)을 점령하는 것으로 시작해, 1905년 러일전쟁 승리 후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욕을 차단해버림으로써 본격적으로 아시아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한다. 1910년, 한반도는 일본 제국에 병합된다. 한반도의 해방은 1943년부터 카이로 회담에서 논의되고,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에서 승인된 연합국들이 구상한 전후 질서에 나타나 있다. 1945년 8월 9일,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고, 소련이 일본령 만주에 맹렬한 공세를 퍼부으

면서 한반도의 북쪽을 해방시킨다. 이어 8월 15일에 일본군은 기실 항복하고 한국 땅에서 물러나게 된다. 잔여하는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한다는 목적으로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소련령과 미국령으로 나뉜 한반도의 분할 점령책이 채택되었다.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지위가 명확해질 때까지 신탁 통치안을 관철하고자 했기에 이는 일시적인 행정 조치라 여겨졌다. 서울에서 모든 정치 세력을 포괄하는 통일 정부 수립을 희망했던 민족주의자 여운형(1885-1947) 등 우국지사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고, 연합국들의 지배가 시작되었다.

#### 인천 방파제 앞의 미 해군(1950년 9월 15일)

© US National Archives/Roger-Viollet



#### 유엔, 전쟁에 개입하다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50년도 북한의 침략을 규탄했다. 당시 소련은 1949년에 공산화되었던 중국 본토가 아닌 오늘날의 대만 섬에 국한된 중화민국을 상임이사국으로 유지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로 본회에 불참했는데, 이러한 소련 대표의 부재는 이점으로 작용했다. 6월 27일,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한국에 원조를 보내도록 촉구했고, 7월 7일, 표결을 통해 미군의 사령부 하에 유엔군의 군사적 개입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전쟁터에서 북한군의 남진이 재개되었고, 미국은 탄약과 군장비에 이어서 군대를 일본에서부터 수송하다가 이후 자국에서부터 수송하기 시작했다. 미 공군은 적의 중진들에 폭격을 퍼부었

으나 인민군의 진격을 저지하지는 못했다. 병력으로나 장비 면에서 열세였던 남한군은 대구를 비롯해 남쪽의 큰 항구가 있는 부산 교두보 전역까지 후퇴할 수 밖에 없었다.

8월 말,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의 승전세를 저지할 방도는 없어 보였다. 그러나 마침내 미국과 남한은 낙동강 방어선에서 북한을 격퇴하고 부산 교두보 방어에 성공한다. 같은 시각, 맥아더 장군과 미 국방부는 지원군과 군수 물자 조달을 기획하였고, 16개국이 유엔의 부름에 응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그리스, 터키, 필리핀, 그리고 작은 룩셈부르크까지, 이들은 남한의 편에 서서 싸웠고, 그 외 국가들은 병원선을 지원해주었다.

8월의 본격적인 미군의 개입으로 부산 교두보 지역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되자 그 주변으로 북한군의 공세가 사그라졌다. 태평양 작전 무대의 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9월 15일의 인천상륙작전을 구상하여 북한군의 보급선을 위협하게 된다. 유엔군은 약

진하며 서울로 전선을 밀고 올라가고, 부산 교두보의 군대들은 소진된 북한군의 포위망을 뚫는다. 9월 25일, 격전 끝에 남한의 수도를 탈환한다. 잇달아 미군과 남한군은 여름에 빼앗겼던 영토들을 수복한다. 이때 북위 38도선을 돌파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이에 대한 격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은 1950년 10월 1일, 국경을 넘어간다. 10월 25일, 평양이 점령당하고, 다음날 전위대가 중국과의 국경 압록강에 먼저 도달했으나, 그곳에 진을 치지는 않았다. 이윽고 다른 부대들이 11월의 압록강 국경지대에 이르렀다. 북한의 운명은 결정난 듯 보였다.

## 중국의 응수

마오쩌둥은 스탈린을 의심스러워 하면서도 그와 맺은 협약에 따라 필요 시 한국전쟁에 개입하기로 동의했다. 중공군은 북한의 붕괴 위험이 임박했던 9월에 참전을 결정했으며, 10월에 전위대를 먼저 파견했다. 한편 맥아더 장군은 이 초기 전투의 중요성을 알잡아보았다. 11월, 유엔군은 북한의 날씨에 모든 공군 지원이 막히면서 중공군의 공세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두 가지 군사 진영이 맞붙었다. 미군은 근대식 기계화 전쟁을 했으나 계속으로 한정된 도로망에 의존해야만 했고, 중공군은 날렵한 경보병이 무리를 지어 이루어진 혁명전 방식으로 산능선과 숲, 논과 밭을 가리지 않고 침투해 남쪽으로 밀고 들어와 유엔군부대를 후방에서 공격했다. 12월, 미군과 남한군은 손 쓸 도리 없이 평양을 두고 후퇴했으며 북쪽의 지상 및 해상으로부터 완전 철수했다.

## 유엔의 대반격

1951년 1월 4일, 서울을 포기해야 했다. 남한의 연이은 퇴각에 일각에서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유엔군 8군의 새로운 사령관으로 부임한, 활력 넘치는 낙하산부대 지휘관 출신의 리지웨이(Ridgway) 장군은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고, 서울 남단에 강력한 방어선 전략을 감행한다. 중공군이 남하하려면 이 방어선을 무너뜨려야만 했다. 미국 제2보병사단의 부대들은 원주 일대에서 수 차례의 전초전을 치른 뒤 최전선에 자리잡는다. 프랑스대대로 증원된 23연대는 서울 동쪽의 지평리 마을에 요새를 이루었고, 네덜란드대대가 소속된 38연대는 원주 북쪽의 횡성에서 고슴도치 방진을 이룬다. 이렇게 방어진을 친 두 연대는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지평리와 횡성에서 중공군 부대 및 사단의 참혹한 맹공을 수차례 받아낸다. 횡성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유엔군 병사들은 공군의 지원 덕에 끝까지 공격에 맞설 수 있었다. 승전보는 유엔군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고, 이어지는 전투에서 제한된 목

미 공군의 폭격을 받는 북한 원산항의 저장시설과 선착장(1951년경)  
© US National Archives/Roger-Viollet





표물을 집중 공략하여 빼앗긴 땅을 수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공군을 쳐부수는 것을 목표로 한 공세가 이어졌다.

1951년 3월 14일, 서울이 탈환되었다. 중공군은 지난 몇 주간의 격렬했던 전투에서 호되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에 공격을 재개한다. 미 8군을 끝장내고자 했던 중국의 사령관 팡덕회 장군은 소련의 무기로 완전무장한 3군단 및 19군단을 서쪽으로 집결시켜 서울과 의정부 일대를 점령하도록 하는 전례 없는 수단을 동원했다. 동시에 가평, 금화, 화천 등의 방향으로 타격하기 위해 또 다른 두 개의 군단을 동쪽으로 집결시켰다. 총 14개의 공산군단이 남한과 유엔의 병사들을 덮쳤다.

서쪽의 영연방 여단은 중공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임진강에서 희생을 감행했고, 서울 북부의 노네임선에 자리잡고 있던 연합군은 중공군의 모든 공격을 격퇴한다. 5월 초, 팡덕회 장군은 동쪽을 공략하기 시작한다. 5월 16일, 팡덕회 장군의 군대는 남한의 3군단을 타격해 사실상 전멸시켰다. 미군의 10군단이 차례대로 철수하자, 적군의 보급선은 위험스레 확장되었다. 공산군은 연합군의 집중적인 탄막 사격과 공군 전술을 감당하지 못하고 5월 20일에 진격을 중단한다. 이날 이후, 조직이 흐트러지고 무기와 탄약이 부족해진 일부 부대들은 유엔군이 가하는 반격에 황급히 철수한다. 유엔군은 공산군의 손에 남아있던 몇몇 마을을 6월에

탈환했고, 동쪽으로는 평강, 철원, 금화를 잇는 철의 삼각지대를 연결하는 도로망과 광산망을 일부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리지웨이 장군은 북한의 가파른 지형에서 연합군의 큰 희생이 예상되는 전투를 감행하지 않기로 했다. 교전국들 간 휴전을 목적으로 모인 협상 자리가 중공군의 강경한 태도로 결렬되면서 결국 공격이 재개되긴 했으나, 개성에서 열린 최초의 휴전회담이 갈등을 완화시켰다

## 기반시설을 공략하라

1951년 가을, 리지웨이 장군은 장래의 국경지대에서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만큼이나 추후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하여 편치볼, 피의 능선, 단장의 능선 등 험준한 지형에서 공세를 강화하기로 한다. 한편 1952년, 미 공군은 북한의 보급선에 가하는 것보다 더욱 치밀한 폭격전을 수행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안전했던 압록강 수력 발전 댐이 폭격을 맞았고, 1952년 6월 23일, 만주의 공업지대에 전기 공급이 중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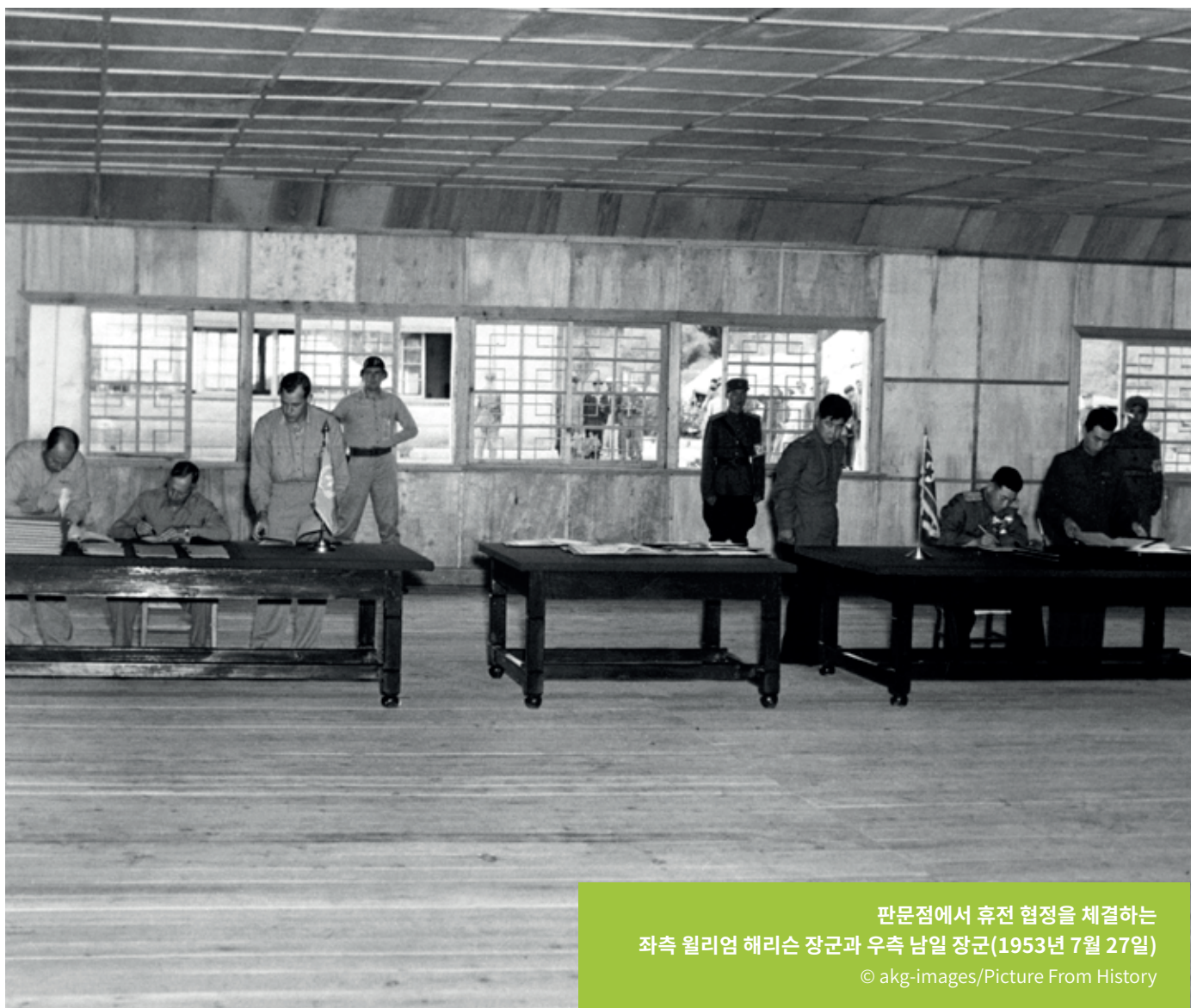
7월 11일에 이어 8월 9일, 평양에 이어 북한 전역의 무수한 기반시설들이 폭격을 당한다. 대부분의 발전소와 공장, 정유소가 파괴된다.

하지만 화려한 작전들도 적군의 물류망을 지속적으로 가로막진 못 했다. 북한은 미공군에 대한 방어력이 증대되고, 소련의 조종사들이 미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 중공군의 유니폼을 입고 나섰다. 1952년 가을, 주은래 총리가 평화적 해결을 요청했지만, 미군을 놓아주기 싫었던 스탈린은 이를 거절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려웠고, 북한은 미 공군의 공습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더욱 상황이 심각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 대규모의 중공군이 화살머리 고지와 백마고지를 공격한다. 이 고지들을 장악했다더라면 철원 평야로 진출해 전략적 요충로들을 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군군, 한국군, 프랑스군은 무수한 죽음을 대가로 치르면서 끝까지 버텼다. 중공군은 만여 명의 병사를 잃는다.

## 허울 뿐인 평화

1953년, 38선 양방에서 전투가 잦아들면서 한국전쟁은 점차 야간 순찰과 폭격, 때로는 공중 결투로 채워진 불길한 일상으로 자리잡았다. 협상 시도가 재개되었다 중단되기를 반복했으나, 분명한 점은 중국과 미국 모두 합의에 이르기를 희망했다는 것이다.

3월 초, 스탈린이 사망하면서 협상이 수월해졌다. 3월 28일, 주은래 총리가 첫 번째 포로 교환을 승낙했다. 협상은 이어졌지만 포로들의 자유로운 행선국 선택 문제가 공산주의 진영의 분노를 일으켰다. 보복이 두려운 수많은 중공군들이 대만을 선택하였으며, 북한군들 역시 남한행을 택했다.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을 체결하는 좌측 윌리엄 해리스 장군과 우측 남일 장군(1953년 7월 27일)

© akg-images/Picture From History



분노한 중국은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남한의 금성에 공격을 재개했다. 중공군 24만 명과 연합군 18만 7천 명의 싸움은 각각 약 1만명과 3천명의 전사자를 낳으며 결판이 났다. 마지막 대규모 공격을 뒤로 하고 7월 27일, 중국과 북한은 마침내 휴전 협정을 받아들인다.

오늘날 한국을 감도는 긴장감은 한국전쟁과 1953년의 휴전 협정에서 비롯된 외상적 유산이다. 두 한국을 둘러싸고 있던 강대국들이 긴 전쟁으로 지치고 다른 전후 사안에 관심을 빼앗기자 피투성이가 된 한국에게 휴전을 강제했다. 그러나 휴전은 무력의 중단과 국경 설정 등의 사소한 문제만을 해결했을 뿐이다. 이후 두 한국은 북한의 1972년 신헌법에서 평양을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로 명시하고, 남한의 헌법 제9조가 평화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등 스스로의 힘으로 화해에 이르려는 시도들을 해왔

다. 다양한 의정서가 체결되었고, 경제 협력 시도도 있었다. 하지만 국가 안보 문제나 우발적 사건들로 인해 거의 모든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다.

과거의 외상으로 인한 상호 불신은 강력한 안보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유럽 내 전쟁의 귀환과 미중 간 삼엄한 긴장 구도로 점철된 오늘날의 세계에서 영원한 안보란 어려운 것이다. 오늘날 두 한국은 더 나은 해결책을 기다리며 서로를 찾고 또 서로를 물어 뜯고 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 에토리 대령

한국의 방위와 관련된 프랑스의 이해관계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국방무관, 프레데릭 에토리(Frédéric Etti) 대령이 프랑스와 한국 간 공유된 기억의 특징 및 그 기억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보존하는 이들을 소개한다.

한국전쟁의 기억이 한반도에서 여전히 선명하다. 프랑스의 참전에 대한 기억은 어떠한가?

한국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교전 상태이고 반복적으로 긴장이 발생하고 있지만, 참전용사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한국전쟁의 기억은 어느 기억들과 마찬가지로 퇴색되고 있다. 프랑스의 참전 기억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다. 그 기억을 되살리고 프랑스대대의 전쟁 서사를 알릴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신화적 인물이 된 몽클라르(Monclar) 장군, 최다수훈 부대, 병력 대비 최다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결코 패한 적 없는 부대, 승리가 불확실할 때 파병한 부대 등, 다행히도 프랑스는 많은 이야기거리를 갖고 있다. 특히 프랑스대대는 외국군과 한국군이 혼합된 유일한 부대로서 한국이 소중히 여기는 전우애의 상징이다.

이 공동의 기억을 가꾸기 위해 국방무관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프랑스의 참전이 큰 틀 안에서 뭉뚱그려 지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활동들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양자 추모 관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더불어 전통적인 기념 행사를 넘어 한국과 프랑스의 젊은이들에게 적합한 방법을 동원해 관심을 끄는 것이 중요하다. 제 전임자인 듀퐁(Dupont) 대령이 시작한 웹툰 제작 작업이 진행 중이고 추후에 드라마 제작으로까지 이어지길 바란다. 서울프랑스학교와도 긴밀히 협력 중이다. 교장 선생님들이 역사 및 시민의식의 관점에서 해당 주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기존의 시청각 자료들의 번역 작업을 확대해 한국 대중들의 접근성을 높이려 하며, 이를 위해 프랑스 군무부의 추모문화기록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 혹은 서울 전쟁기념관의 활동에 동참해 기억 유산의 가치를 더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힘이 되어주는 지원군이 있는지?

르포르(Lefort) 주한 프랑스대사님께서 동 주제 관련 프랑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무관부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다. 프랑스 군무부 역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해주며, 파트리시아 미랄레스(Patricia Mirallès) 참전용사 추모 담당 국무장관실에서도 우리 자료를 친절히 검토해준다. 지칠 줄 모르는 세르파, ‘한국전쟁 참전 프랑스 참전용사 및 친구들 협회’의 보두앙(Beaudoin) 회장과 캥타르(Quintard) 부회장도 빼놓을 수 없다. 저의 전임자 중 한 분, 추모의 길 사업을 실시하셨고, 조력과 조언을 결코 아끼지 않으셨던 나스(Nass) 대령도 잊을 수 없다.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및 국가보훈처(MPVA), 대한민국 재향군인회(KVA) 등 우리의 한국 친구들도 있다. 국방무관은 이 사안에 있어서 결코 혼자가 아니다. 대사관 내 관계자들의 활동과 조화를 이루고자 소박하게나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추모 활동들이 현재 한국 내 프랑스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가?

두말할 필요 없다. 추모의 과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프랑스의 한국전쟁 참전은 양국 우정의 강력한 상징이며 이 지점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프랑스의 참전은 한국군을 비롯한 모두에게 군사적 지원의 중요성이 단지 병력수로만 계산될 것이 아니라 가치에 의해 측정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프랑스는 지구 반대편에서도 역사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어 놓을 부대를 보내는 나라다. 프랑스대대의 전훈 덕분에 오늘날 프랑스군에는 자발적이고, 거칠고, 잘 잡힌 규율 속에서도 추진력을 발휘하며, 높은 윤리 의식을 지니고, 때론 비정형적이나, 승리를 향한 강한 의지에 의해 움직이는, 옛 참전용사들의 이미지가 투영되어 있다.



지평리 전투(1951년 2월 13-16일) 추모식에서  
주한 프랑스대사와 에토리 대령(2023년 2월 16일)

© Ambassade de France en Corée

더 알아보기





## 부산 유엔기념공원 프랑스 묘역

유엔군 프랑스대대 병사들의 유해는 대부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프랑스에 안장되었다. 그러나 이들 중 44인의 묘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모셔져 있다. 프랑스 군무부의 지원으로 관리되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은 진정한 기억과 헌정과 전승의 장소이다.



부산 유엔평화공원의 프랑스 묘역(2011년 5월)

© DR

한국전쟁 동안 전사한 프랑스 병사들의 유해 대부분이 본국으로 송환되었으나, 44구의 유해는 한국에 남아 1950년 7월의 첫 미국 원정군 상륙지이자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모셔졌다.

전쟁이 끝나고 난 자리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군사 묘지들을 유엔사령부의 지휘 하에 한데 모아 부산의 외곽 탕곡에 국제 묘지를 설치한 것은 1951년 1월 일이다. 1955년 8월,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해당 묘역을 유엔에 공식적으로 영구히 기증하고, 이곳을 성지로 지정하도록 대한민국 의회에서 결의한다. 같은 해 12월 15일, 유엔총회는 이 묘지를 유엔이 영구적으로 관리하기로 결의한 제977호를 채택한다. 1959년 11월 6일, 대한민국 정

부와 유엔은 묘지 설치 및 유지를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

14헥타르에 달하는 세계 유일의 유엔 묘지이 이곳에는 유엔기 아래에서 싸운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캐나다, 대한민국, 미국, 프랑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네덜란드, 터키 등 11개국 출신 2,300명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

묘지는 국가별 국기로 표시되어 구역이 나뉘어져 있다. 각 묘마다 놓인 비석과 청동판에는 고인의 종교적 상징과 이름, 계급, 소속, 전사일이 새겨져 있다.

프랑스 묘역의 면적은 230 m<sup>2</sup>으로, 묘지 안내도에 27번으로 표기된 공간이다. 이곳에는 44개의 개인 묘가 있다. 묘역의 앞에는 커다란 청동판이 붙은 화강암 비석

이 세워져 있다. 전쟁 중 사망한 모든 유엔군들을 위한 추모의 벽 위에서도 269인의 프랑스군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묘지 안쪽에는 특별히 안장을 요청했던 프랑스 참전용사들을 모신 특별 묘역이 마련되어 있다. 프랑스 참전용사들 중 세 사람이 2015년 5월 15일, 2016년 10월 27일, 2022년 11월 22일에 각각 안장되었다. 또 다른 참전용사 한 사람은 그의 유지에 따라 2017년 11월 2일부터 비무장지대에 안장되었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만하다.

더 알아보기



# 서울프랑스학교, 참전 용사들과 만나다

2022년 11월 8일, 서울프랑스학교 2학년 학생들이 유엔군 프랑스대대의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과 만남을 가졌다. 공유와 전달의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경험담이 펼쳐졌다.



프랑스의 한국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이하여 역사지리·지정학·정치학 전공의 2학년 학생들이 유엔군 프랑스대대의 참전용사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만남에 앞서, 학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교과서에는 거의 언급된 바 없는 이 전쟁에 대해 알려주고자, 학생들은 세드릭 콩동(Cédric Condon)과 장 이브르 나우르(Jean-Yves Le Naour) 감독의 2015년 작 다큐멘터리 영화 <한국, 잊혀진 병사들(Corée, nos soldats oubliés)>을 시청하고 왔다.

11월 8일, 학생들 일행이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도착했다. 파트릭 보두앵(Patrick Beaudouin) 한국전쟁 참전 프랑스 참전용사 및 친구들 협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학생들은 전쟁의 여러 단계 별 프랑스 군대의 주둔 경로를 추적한 짧은 다큐멘터리를 시청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준비해온 질문들을 바탕으로 참전 용사들과 대화를 이어 나갔다.

학생들에게 가장 궁금했던 건 참전 용사들의 참전 계기다. 초기 프랑스대대는 젊은 예비역 군인들로 구성되었으나, 인도차이나전쟁으로 떠날 준비를 하던 현역 군인들이 이곳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인도차이나에 가려던 참이었으나 마지막에 한국을 해방시키고자 한국에 가고 싶어졌다.” 참전 용사 콜롱 가르시아(Colon Garcia)가 완벽하게 요약해주었다.

유엔군 프랑스대대 대원들의 항해 여건부터 부산항 상륙 등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그들의 여정 이모저모가 언급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참전 용사들 중 한 분께서 한국에 도착하던 당시 그를 스쳤던 감정과 느낌들을 가감 없이 말해준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의 눈 앞에 펼쳐진 민간인들의 고통과 역경, 굶주림, 파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당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끊임없이 떠오르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 날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전투담이었다. 참전용사 미셸 오스왈드(Michel Oswald)는 단장의 능선 전투로 더 잘 알려진 931 고지 점령, 화살머리 고지 전투, 철의 삼각지 전투 등 프랑스대대가 맹활약했던 전투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주었다. 또한 참호 속에서의 추위, 영하 20도에서 30도에 육박하는 겨울 날씨, 발가락 동상을 피하기 위해 미군들로부터 배운 기술 등 군인들의 생활환경이나 전우를 잃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유엔군 프랑스대대 참전용사들의 특별한 증언은 역사지리·지정학·정치학 전공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을 영원한 흔적으로 남았을 것이다. 우리의 추모 여정의 다음 단계는 부산의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하여 그곳에 잠들어있는 프랑스 군인들의 기억에 경의를 표하는 일이다.

# 시청각 자료

더 많은  
전시 및 도서

cheminsdememoire.gouv.fr

## 한국전쟁과 프랑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고 60년이 지난 2020년, 파리 군사박물관은 미국과 프랑스의 양자 비영리기관인 첫동맹재단(Fondation The First Alliance)과 협력하여 한국전쟁을 주제로 한 일일 학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역사학자 및 전문가들은 한국전쟁의 군사적, 국제적, 유산적, 정치적 측면을 흥미롭게 다루었다. 사전 공지된 학술대회의 목표는 한국전쟁이 프랑스에 미친 영향을 결정권자 및 여론과 정치 운동 차원에서 측정해보자는 것이었다. 모든 순서는 프랑스 국방부 소속 공보 및 시청각 자료 제작소가 촬영하여 파리 군사박물관의 유튜브 채널에서 무료로 다시보기 할 수 있다.

일일 학술회 '프랑스가 경험한  
한국의 냉전기'



## 비무장지대를 찾아서

한국전쟁 휴전 협정 70주년을 맞아 부산 유엔기념공원은 한국의 국가보훈처 및 구글이 주도하는 '한국의 비무장지대' 사업의 일환으로 무료 온라인 전시를 제공한다. 누리꾼들은 비무장지대라는 안경을 통해 한국전쟁을 재발견할 수 있다. 전에 읽은 정보에 대한 문제를 푸는 퀴즈 등 관람객 참여형 콘텐츠가 다수 준비되어 있다. 전시 사이트는 '역사 배우기', '자연 탐험하기', '예술을 통해 발견하기'라는 세 가지 큰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찬

찬히 둘러보다 보면 비무장지대의 동식물을 증강현실로 관찰하고, 이제는 폐허가 된 노동당 사무실 터를 산책하거나 위트콤(Whitcomb) 장군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오락적 방식으로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비무장지대  
더 알아보기

## 37분 만에 알아보는 한국전쟁

프랑스의 국영 라디오 채널 프랑스앵테르(France Inter)가 선보이는 이 팟캐스트는 잊혀진 전쟁을 이해하는 열쇠를 건네준다. 무슈X의 따뜻한 목소리가 냉전기에 가장 참혹했던 전쟁인 한국전쟁의 현장으로 청취자들을 안내한다. 분단된 한 나라와 그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세 개의 열강, 민간 및 군인 희생자 2백만에서 3백만 명. 한국전쟁은 슬픈 기록을 남긴 전쟁이자, 여전히 미제로 남겨진 전쟁이다. 팟캐스트의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민감한 주제이자 의견이 분분한 미군의 세균 무기 사용 가능성을 파헤쳐 본다. 너무나 감춰져 있었던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교육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팟캐스트 <한국전쟁>(2021), 총 2개의 에피소드,  
프랑스 앵테르(France Inter)



## 냉전 A to Z



길었던 냉전 기간과 다양한 전쟁 양태로 인해 일반 대중이 냉전의 모든 면모를 완벽하게 알기란 어렵다. 프랑스의 국영 라디오 문화 채널 프랑스 키투르(France Culture)가 제작

한 팟캐스트 <냉전 제작소(La Fabrique de la Guerre Froide)>는 몇 분 분량의 에피소드 60여개로 구성되어 이토록 냉전을 특별하게 만든 사건과 일화를 소개한다. 1949년 9월 20일 제1회 칸느 영화제에서 축제 분위기 가운데 냉전의 긴장감이 돌았던 사건 등 비극적이면서도 별난 사건들이 대학교수와 연구자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목소리로 되살아난다. 39번째 에피소드는 '최초의 유엔 전쟁'이라 불리는 한국전쟁에 초점을 맞춘다. 역사와의 화해를 그리는 완벽한 묘사다.

팟캐스트 <냉전 제작소(La Fabrique de la Guerre Froide)>(2015-2017), 총 78개의  
에피소드, 프랑스 키투르(France Culture)



# 관련 작품

## 작전 중인 장군

미군의 상징적인 인물,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이 몸담았던 20세기의 전투들에 대한 다방면적 시각을 회고록에 담았다. 그는 지시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행동하는 사람이었기에 때로는 명령을 넘어서기도 했다. 아칸소주 출신의 그는 1918년에 최연소 장군이 되었고, 이어 1942년에 남서태평양 작전의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되

었다.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그의 전술적이고 전략적인 능력을 인정받아, 1950년에 한국을 구하기 위한 유엔 원정군의 사령 임무를 맡게 된다. 맥아더 장군의 예리한 필치는 본인이 참가했던 여러 전투들로 독자들을 이끌고 가며, 마침내 우리 현대사의 이면을 드러낸다.

<전쟁의 기억>(2022), 맥아더 더글라스 지음, Nouveau Monde Edition 출판, 323쪽, 9.90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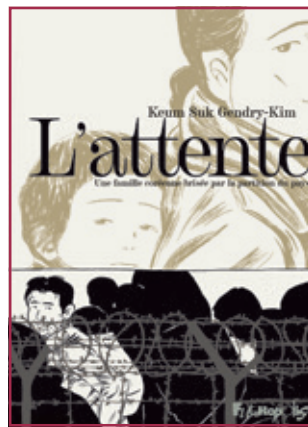
## 유엔의 모든 것



1945년 10월 24일 설립되어 전 세계적 소명을 갖고 출범한 유엔의 기능은 다소 복잡해 보이곤 한다. 그도 그럴 것이, 프랑스의 드골 장군은 1960년에 유엔을 '그거'라 칭했고, 이후 유엔은 발전을 거듭한다. 오늘날 193개국이 유엔을 이루고 있다. 프레데리크 메스트르 라파이(Frédérique Mestre-Lafay)의 경이로운 컬렉션 '내가 뭘 알겠어(Que sais-je?)'를 통해 독자들은 유엔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유엔을 세계의 지정학적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필수 지식을 전달받는다. 국제 평화 보장을 위한 유엔의 행동 채택부터 유엔의 활동 분야에 이르기까지, 이제 유엔의 베일을 벗길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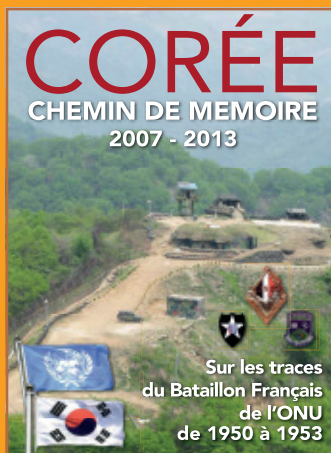
<유엔(L'ONU)>(2023년 재판), 프레데리크 메스트르 라파이 지음, Que sais-je ? 출판, 128쪽, 10유로

## 한국 서사시



2018년 서울. 92세 구자씨는 1950년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을 되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동요된다. 생의 마지막 충동에 사로잡힌 구자씨는 삽화가인 딸에게 지금껏 고이 묻어 두었던 자신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한다. 비극과 기다림으로 점철된 세대를 아우르는 서사시가 이어진다. 작가는 나라를 갈기갈기 찢은 분단의 역사를 흑백의 서정적 삽화를 통해 사적인 이야기로 재탄생시킨다. 겉으로 드러나는 폭격과 피난의 전쟁이 있다면, 마음 속에 몰래 품어온 전쟁도 있다. 작가 김금숙은 엄마의 증언을 바탕으로 더 이상 증언하지 못할 사람들의 기억을 긴급하게 전달한다.

<기다림, 한국전쟁으로 부서진 삶의 이야기(L'attente, récit de vies brisées par la guerre de Corée)>(2021), 김금숙 지음, Futuropolis 출판사, 248쪽, 26유로



## 유엔군 프랑스대대의 발자취를 따라

한국전쟁이 끝난 지 60주년 이 되던 2013년에 완성된 프랑스 군무부가 발간하는 책자 '추모의 길'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장렬하게 한국에 몸바친 유엔군 프랑스 대대의 여정을 추적하고 있다. 10년이 지난 오늘날, 한 반도를 찾는 추모객들은 그들의 발자취를 좇을 수 있다. 주한 프랑스대사관과 한국

동료들의 긴밀한 협력으로 탄생한 이 책자는 유엔군 프랑스대대와 관련 핵심 주제들을 나열한다. 실용적인 조언과 역사적 배경과 지도로 가득한 이 책자는 전적지를 방문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필수 자료다. 대대의 사령관 올리비에 르 미르(Olivier Le Mire) 중령의 전투 일지 <단장의 능선 습격(L'assaut de

Crèvecoeur)> 발췌본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투의 격렬함 속으로 빠져든다. 아래 QR코드를 스캔하면 무료로 책자를 만나볼 수 있다.

더 알아보기





# JANE JIN KAISEN

## *Of Specters or Returns*

Maison du Danemark, 2<sup>ème</sup> étage  
142 Avenue des Champs-Élysées  
75008 Paris

**Exposition** Entrée libre  
**17.02.23 au 23.04.23**

# Le Bicolore



Maison du  
Danemark